

여수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총력

‘남해안 남중권 유치 간담회’ 개최

전략·실천 과제, 유치위원회 논의
지난해 지원 조례 제정 기반 마련
“국정과제 반영 등 단계별로 대응”

전라남도 여수시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의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전라남도 및 지역 시민단체와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기명 시장을 비롯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동서창조포럼,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여수YMCA, 여수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 대표 12명이 참석해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



여수시가 2일 시청 상황실에서 전라남도 및 지역 시민단체와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수시 제공

사국총회(COP33) 유치 전략과 실천 과제, 유치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회의로 매년 198개 당사국이 참여해 기

후변화협약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회의는 오는 2028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대한

민국이 유치 의사를 공식 표명하면 아·태 지역 그룹 내 협의를 거쳐 개최국을 결정하게 된다.

여수시는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

를 위해 지난 17년간 중앙정부와 국회에 유치 필요성을 지속 건의해 왔다. 지난해에는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 바 있다.

최근에는 세계지방정부협의회(ICLEI),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UNFCCC) 등 국제기구와 유치 협력 기반을 강화했으며, 국정과제 반영 및 국가 유치 의사 표명, 아·태지역 그룹 내부 협의, 개최도시 확정이라는 단계별 이행안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는 국제행사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기후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라며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여수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청년지원센터 ‘목요 야간 운영’ 확대… 오후 9시까지

전라남도 여수시는 6월부터 청년지원센터 ‘목요 야간 운영’을 오후 9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시간대를 고려해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조치로, 센터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여수시 청년지원센터는 18~45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목요 야간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회의실·다목적실

공간대여,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사업, 여가 취미활동, 원데이클래스 등이 있다.

다만 공간대여는 여수시 청년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유선을 통해 사전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 사정에 따라 일부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누리집(www.yeosu.go.kr/youthcenter)을 참고하거나 청년지원센터(061-664-2115)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이경기 기자

‘치유의 길, 여순’ 프로그램 운영… 마음건강 회복

여순사건 피해자·유족 대상

전라남도 여수시는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와 유족의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치유의 길, 여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치유의 길, 여순’ 프로그램은 오랜 세월 고통을 겪어온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의 자문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오는 26일까지 주 1회 진행되며 노래 치유, 운동 치유, 전통 다도, 한

방치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돼 참여자들의 신체와 마음의 균형 회복을 돕는다.

시는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와 연계해 국가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국가폭력 트라우마 피해자와 가족의 치유를 위해서는 사회공동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고통의 기억을 치유하고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 추가 접수… 9일부터

전라남도 여수시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접수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이전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굴삭기다.

다만 여수시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교체 이력이 없어야 하며, 대상자 선정 이후 진행하는 성능·상태 검사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

아야 한다.

지원금은 배출가스 등급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가액에 따라 차등 책정되며,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배출가스 5등급은 최대 300만원, 4등급은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과 소상공인은 기본 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해 상한액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을 발송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 ‘다양한 우리 쌀·밀 활용 교육’ 현장에서 시민들이 쌀, 밀, 쑥, 옥수수 등 국내산 농산물을 활용해 인절미 쿠키를 만들고 있다. 여수시 제공

‘다양한 우리 쌀·밀 활용 교육’ 성료

지역 농산물 활용 베이킹 수업

전라남도 여수시는 최근 ‘다양한 우리 쌀·밀 활용 교육’이 높은 참여와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여수시민 35명을 대상으로 국산 쌀과 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쌀, 밀, 쑥, 옥수수 등을 활용해 쑥 파운드케이크, 인절미 쿠키, 옥수수머

핀을 만드는 베이킹 실습으로 진행됐으며, 교육생들은 실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농산물 조리 방법을 익혔다.

여수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쌀과 밀, 지역 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성산·여문공원, 물놀이 시설 내달 12일 개장

생각키움 놀이터 암골못공원 등 바닥분수 9곳은 27일부터 가동

전라남도 여수시는 시민들이 시원하게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도시공원 내 물놀이 시설 운영을 재개한다고 2일 밝혔다.

성산공원과 여문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2곳은 오는 7월12일 개장해 8월17일까지 운영한다.

3세부터 12세(초등학교) 이하 어린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오전반(10~12시)은 여수시OK통합예약시스템 온라인 예약과 선착순, 오후반(2~5시)은 선착순으로만 입장이 가능하다.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안전 점검으



원 50명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올해 새로 조성된 생각키움 체험놀이터 암골못공원, 강남정공원 2곳과 이순신공원, 동동공원, 해변문화공원 등 7곳 내 바닥분수는 오는 27일~8월31일 오전 10시~오후 9시까지 45분 가동, 15분 휴식으로 반복 운영된다.

공원 산책로 주변에 설치된 쿨링포그는 정비를 마쳐 오는 27일부터 가동되며, 이순신광장과 남산공원에 설치된 인공 분수는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긴 5월 초부터 운영돼 시민과 관광객에게 불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올해는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물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